

# 禁域의 장막 걷는 한국의 軍과 軍部

## 문민시대 개막 맞아 군 관련도서 잇달아 출간

軍과 관련된 책들이 일반인들의 도서목록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년 전의 일. 군관련 사항은 무조건 최우선·금기사항이었고, '軍部'가 '君部'였던 우리에게 지난 2, 3년은 세계적 군축추세에 따른 국내 군축제안서들의 출간이 조심스레 선보인 중요한 시기였다.

그런데 최근 새정부의 과격적인 군인사 단행과 국방예산 공개 및 직업군인 처우개선, 비리척격, 인사개편 등을 골자로 한 '군개혁 5대과제'가 국방부에 의해 발표되면서 우리 군의 새탄생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군대 내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들이 쏟아져 군관련서의 출간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역 장군과 야전군 대대장, 그리고 퇴역 장교를 비롯한 군출신 인사들과 대학교수 등이 집필한 이런 책들은, 술자리 안주감이던 군대이야기와 군문제에 대한 다양하고 진지한 시각제공이란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 군출신 인사가 저자의 대부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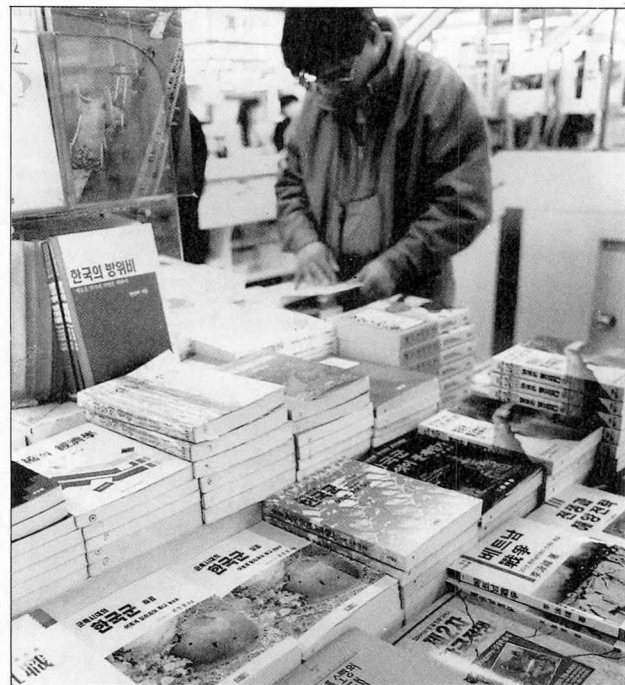
먼저 성골·진골로 상징되는 육사출신 장교를 제외한 ROTC 등 일반출신 장교를 지칭하는 '육두품 장교'들에 대한 불평등한 인사제도 등을 성토했고 군생활의 이모저모를 살핀 「육두품소령의 군대이야기」(김환태, 쟁기)는 군대내부의 '환부'를 들춰낸 책. 장교의 95%를 차지하면서도 들러리에 그치는 육두품 장교들의 오랜 불만을 대변하고 있는 책으로, '군부재사 선거의 요지경' '성적을 팔고 사는 육군대학' '희망없는 부대주인, 하사관' 등의 소재를 통해 저자의 의도가 증명된다.

이 책과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꾸며진

책으로는 「인생성공 보장된다」(김택수, 어문각)를 들 수 있다. 육사19기로 군의 요직을 거친 저자는 연대장시절부터 준비한 학위논문과 부대지휘관 당시의 체험 등을 「군 발전과 보람된 병영생활을 위한 제언」으로 묶고 있다.

이밖에 군체험을 정리한 책 「멋」(진원)과 「바다는 기러기를 붙잡아 두지 않는다」(천지서관)가 있다. 육군대령 출신이면서 미해군 대학원교수를 역임한 지만원씨의 「멋」은 그동안 펴냈던 연구서 「군축시대의 한국군」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와는 달리 자신의 군생활을 회상해 엮은 체험기로 읽힌다. 한편 현역 해군대령인 오건석씨의 책 「바다는 기러기를……」은 해군특유의 군생활을 소개한 것으로, 구축함장으로 근무하면서 겪었던 바다와 해군의 이야기를 담백하게 기록한 함상일지. 현재 동부전선에서 대대장으로 근무중인 원종록씨의 병영생활 지침서 「병영 25시」(세기문화사)도 출판돼 있는데, 이 책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위한 군생활 소개서다.

이같은 군체험기록과는 달리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 무게 실린 저서도 출판돼 눈길을 끈다. 학군장교 10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수인 홍두승씨의 「한국군대의 사회학」(나남)은 "명실공히 문민정부를 맞아 군대사회학의 관심영역도 넓혀져야 하며 군복무 동기나 군생활 적응 등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주제에 대해서도 좀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 "군의 위상과 군조직의 내적 갈등에 대한 관심, 군복무의 형평성, 군공동체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등을 '군대와 한국사회연구'의



한 대형서점의 군관련도서 코너.

과제로 꼽고 있다. 이어 '직업군인과 민군관계' '미래의 군' '군부 엘리트'에 대한 연구 성과도 모았다.

### 본격 연구서와 전문지도 창간돼

군부엘리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와 군과 권력관계를 추적 보도한 기사를 모아 펴낸 신간 「문민시대의 군부와 권력」(나남)은, 80년 해직돼 88년 복직후 현직 동아일보 정치부차장으로 있는 김재홍씨의 책. 92년 관훈클럽언론상을 수상한 저자는 이 책에서 "시민사회에서 군의 명예가 실추된 원인은 12.12와 5.18 광주사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후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하고 민주규범을 깨뜨려 불명예의 씨앗을 뿌렸다"고 비난한다. 문민시대의 군수뇌진과 군부의 제자리 찾기,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군부의 반응 등을 취재한 글과 군정 30년의 비사, 그리고 80년대 신군

부와 6공의 민군관계를 분석한 취재기사가 흥미를 돋구는 책.

지난 3월 창간된 군사전문 월간지 「군사저널」(대표 이문헌)도 이들 단행본과 함께 성역으로서의 군의 무게운 빚장을 열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창간특집기사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한 육사 11기생들의 입학·졸업성적을 공개하면서 '포문'을 열어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금기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책들의 공통점은 권력과 정치에 개입해 상처만 남긴 우리 군의 새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군인들의 명성과 이 명성에 수반되는 모든 영예야말로 군인들이 정치적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부여받는 대가" 「파워 엘리트」라는 C.W. 밀스의 지적이 새삼 떠오른다.

—최태원 기자

## 책을 만들려면 이 정도의 감각은 필수 아닐까요?

똑같은 재료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음식맛이 달라지듯, 아무리 좋은 원고도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책 '맛'이 달라진다! 깔끔한 편집자, 센스 있는 디자이너, 안목 있는 기획자가 꼭 챙겨야 할 디자인 위크북!

- 디자인의 전모가 한눈에 쏙!
- 전문가는 디지털로, 초보자는 부패처럼 읽어야 할 책!

커트 랭크스, 데이브 에드워즈, 래리 벨리스턴/홍현숙 옮김  
신국판/별색인쇄/192면/값5,300원

# 재미있는 디자인여행



## 세계 마스터리 걸작선 02

###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잘 차렸다.

코난 도일 · 아카사 크리스티 · 스티븐 킹 · 체스터튼 · 엘리리 퀸... 정통 추리에서 서스펜스, 하드보일드, 정신분석, 심층심리, 사회파에 이르기까지, 마스터리 거장들의 백미가 한자리에 모인 세계 단편 추리소설의 진수성찬.  
정영록 · 정태원 편역/각권5,500원

전화 738-0931~2/팩스 720-3469  
서울·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빌딩 1-306호

